■ 신종플루 無風 학교 VS 집단감염 학교

비감염 학교 운동·체조·녹차마시기 생활화

감염 학교들 체육시간, 자율·보충수업 대체

광주 문정여고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서 세 잔 이상의 녹차를 마신다. 학교 급식실에는 물 대신 보성에서 직접 가져온 최고급 녹차 잎으로 우려낸 '녹차'가 항상 놓여 있다.

또 수업이 끝나면 두 시간에 한 번씩 맨손 체조를 해야 한다. 급식 시간은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스스로 운동장을 세 바퀴씩 뛰어야만 끝이 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중간·기말고사 등 각종 시험 이후 외부 강사를 초빙해 에어로빅과 댄스 수업 등을 3시간 이상씩 실시한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선택이 아닌 무조건 지켜야 하는 학교 규칙이다.

올 3월 개교한 문정여고는 1학년 10학급 400명 규모의 아담한 여자 고등학교다. 그런데 이 학교에선 현재까지 신종플루 확진 학생이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정여고 교직원과 학생들은 꾸준한 운동과 녹차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이 학교 김영자 교장은 "건강한 체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게 문정여고의 교육 철학"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특성상 학생의 체력 단련이 필수인 광주체육중·고교도 신종플루 '무풍지대'다. 이 학교에는 각 179명과 246명의 학생이 재학중인 데, 현재까지 신종플루 의심 학생조차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반면 신종플루 확산 초기부터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A고교는 기본 체육시간마저 축소해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신종플루 집단 발생 학교도 체육이나 교외 활동 보다는 학업 능력 향상에만 주력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각 학교별 신종플루 발생 실태와 학교 운영 방식의 연관 관계를 분석했으며, 이를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사결과가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닌 만큼 '참고 자료'로만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신종플루와 학교의 운영방법이 연관성이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체육 등 활동시간이 많은 학교에서 신종플루 감염자가 적게 나온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1일부터 한달간… 학교서 받으면 무료

■ 학생들 신종플루 예방접종 어떻게

11일로 예정된 신종플루 학생 단체 예방접종을 앞두고 어떤 절차를 통해 접종이 이뤄지는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생 예방접종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한 달간으로 초·중·고교 및 외국인학교, 학력인정학교 등 각종학교 학생과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정부가 백신비용을 부담하는 우선접종 대상자인 학생은 예방접종을 학교에서 받으면 무료이지만 병원 등 위탁 의료기관에서 받는 경우 별도의 접종비용(1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종 시기도 12월 중순까지 지연될 수 있다.

각 학교는 6일까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와 관할 보건소에 제출·통보한다. 이때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 1주일 전에는 사전예진표와 접종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학교는 접종 대상 학생들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각종 주의사항과 예진표 작성 방법을 알려준다.

또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대기실과 접종실, 접종 후 관찰실 등을 각 학교에 마련한다. 보건소는 학교예방접종팀을 구성,관할지역 내 학교를 돌며 접종을 한다.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대처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이 학생 가정에 배부된다. 시·도교육청은 담임·보건교사가 접종 후 학생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상반응을 보일 경우 곧바로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

5·18 '5대 과제' 토론회

기념재단, 30주년 앞두고 현주소 진단

5·18기념재단이 30주년을 앞둔 5·18 민중항쟁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 기념사업 등 소위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한 연속 학술토론회를 연다.

5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6일부터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세 차례에 걸쳐 서구 치평동 5·18 기념문화관 대동홀에서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5·18 민중항쟁 30주년 준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6일에는 '명예회복 현황과 과제'와 '피해자 보상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13일에는 '진실규명 현황과 과제'와 '책임자 처벌 현황과 과제', 마지막날인 20일에는 '기념사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토론회를 갖는다.

또 첫 번째 토론회가 열리는 6일 서구 상무지구 광주 NGO센터에서는 광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서울지역 진보학자들로 구성된 '급진민주주의포럼'의 학술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포럼이 진행된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6일에는 5·18연구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올해 연구지원 성과를 발표하는 워크숍도 함께 열린다"며 "시민들과 사회활동가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철도노조 파업

KTX 등 정상 운행

전국철도노조가 5일 오전 9시를 기해 광주·대전 등 비수도권지역에서 파업에 들어갔으나 우려했던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다.

출근 시간대 등을 피한 데다 코레일이 대체인력 등을 집중 투입, KTX와 새마을호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됐다.

하지만 무궁화호(85.1%)와 화물열차 등의 운행편수가 다소 줄면서 일부 이용객이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97.7%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치의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전남대 5대 1 조선대 7대 1

전남대와 조선대의 치의학전문대학원이 5일 2010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각각 5대 1, 7.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대는 모두 40명을 뽑는 정시모집에 200명이 지원했다.

전남대는 서류심사를 통해 전형 별로 2~5배수를 1차 선발한 후, 오는 12월5일 심층면접고사를 거쳐 22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대는 총 80명을 선발하는 정시모집에 572명이 지원해 평균 7.1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8일 발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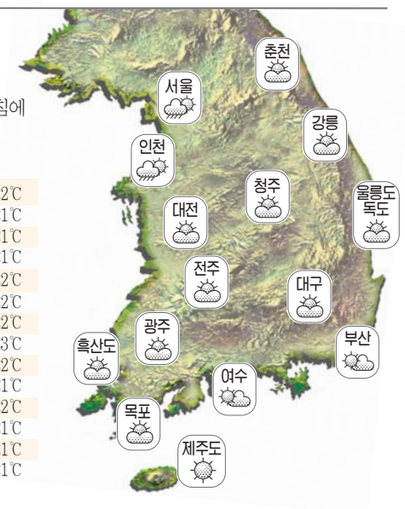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뜸 06시 58분 해짐 17시 34분 / 달뜸 20시 22분 달짐 10시 33분

은은한 책향기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광 주	구름 많음	11/22℃
목 포	구름 많음	13/21℃
여 수	흐린 뒤 맑음	14/21℃
완 도	구름 많음	12/21℃
구 례	구름 많음	7/22℃
해 남	구름 많음	9/22℃
장 흥	구름 많음	8/22℃
고 흥	흐린 뒤 맑음	9/23℃
순 천	구름 많음	10/22℃
영 광	구름 많음	11/21℃
진 도	구름 많음	19/22℃
전 주	구름 많음	11/21℃
남 원	구름 조금	5/21℃
흑산도	구름 조금	14/2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1.0~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0.5m
먼바다	남서~서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낮음	주의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3:58 16:49	09:08 21:53
여수	11:19 23:15	04:37 17:2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날 씨						
최저/최고	12/24	14/19	13/21	12/21	10/19	9/18

'수능 한파' 없다

12일 광주·전남 9~18도

올해는 수험생들이 '수능 한파'에 떨지 않고,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일 광주·전남은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기습 추위는 몰아치지 않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수능 당일인 12일 광주의 기온은 9~18도로 평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된다. 같은 날 여수와 목포의 기온도 12~18도, 10~17도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8~9일 비가 예상되지만, 수험생 예비소집이 열리는 11일은 물론 수능 당일까지 별다른 추위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추위가 몰아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